

보도시점 2026. 4. 20.(월) 배포 시 배포 2026. 4. 20.(월) 15:00

농식품부, 농협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현장 공감대 확산 추진

- 경상권(4.22, 수), 충청권·전라권 및 경기권·강원권(4.24, 금) 설명회 실시
- 농업인, 조합장·조합원, 농업인단체, 전문가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내부통제 강화 및 운영투명성 제고, 중앙회장 조합원직선제 도입 등 개혁방안에 대하여 농업인, 조합원, 조합장,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전국을 ①경상권, ②충청권·전라권, ③경기권·강원권으로 나누어 총 3차례 개최된다.

첫 번째 설명회는 대구·부산·울산·경상 지역을 대상으로 4월 22일(수), 14시 농협 대구지역본부(대구)에서 열린다. 두 번째 설명회는 충북·충남·세종·전라·대전·광주·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4월 24일(금) 10시 농협 충북지역본부(청주)에서 실시되며, 세 번째 설명회는 경기·서울·인천·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4월 24일(금) 15시에 농협 경기지역본부(수원)에서 개최된다.

<설명회 개최 일정>

구분	일정	장소	해당 시·도
1차	4.22(수), 14시	대구지역본부(대구)	대구·부산·울산·경상
2차	4.24(금), 10시	충북지역본부(청주)	충북·충남·세종·전라·대전·광주·제주
3차	4.24(금), 15시	경기지역본부(수원)	경기·서울·인천·강원

*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는 일부 변경 가능

농식품부는 설명회를 통해 농협개혁 방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참석자들과의 종합 토론을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 논의과정 등에서 농협 개혁 입법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윤원섭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협개혁 방안은 농협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조합원과 농업인에게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실효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44-201-1751)
		담당자	주무관	황사량 (044-201-1758)